

GICC 2023에서도 부산세계박람회 세일즈 외교 빛났다

- 원 장관, GICC에 방문한 7개국 장관·청장 등 24개국 대표에게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관심을 직접 부탁... 공식 만찬식 기념사에서도 지지 호소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0일 막을 내린 2023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이하 GICC 2023)*에서 대한민국 2호 영업사원 원희룡 장관이 24개 참가국 대표 등에게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를 적극 알리며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고 밝혔다.

* (일시) 9.19~9.20 (장소) 그랜드 인터컨 파르나스

(참석) 해외 고위급 인사 등 90여명, 국내 기업 등 500여명

- 원 장관은 GICC 2023을 계기로 개최된 양자 면담, 공식 만찬 등 행사 기간 전반에 걸쳐 유치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부산은 준비됐다(Busan is Ready)’ 슬로건을 언급하며, ‘2030 BUSAN’이 상징적으로 새겨진 전통 부채 등을 기념품으로 전달하였다.
- 원희룡 장관은 GICC에 참석한 이라크, 필리핀, 카타르, 라오스, 콜롬비아, 폴란드, 몽골 등 7개국 장관 및 청장을 직접 만나 인프라 우호 협력을 다지며, 2030년 세계박람회가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간곡히 요청하였다.
- 원 장관은 면담이 끝날 때마다 상대측 수석대표에게 부채, 키링, 배지 등 기념품을 직접 손으로 건네며,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였다.
- 또한, 원 장관은 24개국 고위급, 대사 등이 참석한 공식만찬 행사에서도 11월말 파리에서 이루어질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국 투표 시 한국을 지지(support)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귀빈들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느낄 수 있도록 인천공항, KTX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 영상을 상영할 계획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에는 교통·인프라 등과 관련된 국제적인 행사, 네트워크가 많이 있다”면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번 GICC와 같은 계기가 있을 때마다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지지를 호소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담당 부서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총괄과	책임자	과장	이재평 (044-201-3804)
		담당자	사무관	김미리 (044-201-3788)



참고

GICC 2023 계기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홍보 사진

□ GICC 계기 양자면담

필리핀 공공사업도로부 장관 마누엘 보노안(Manuel M. Bonoan), 9.19	카타르 공공사업청 청장 샤드 빈 아흐메드 알 무하난디 (Dr. Eng. Saad Bin Ahmed Al-Muhannadi), 9.19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 장관 응암파송 므엉마니(Ngampasong Muongmany), 9.19	콜롬비아 교통부 장관 윌리엄 페르난도 카마르고 트리야나 (Wiliam Fernando Camargo Triana), 9.19
	
몽골 울란바토르 교통체증완화위원회 위원장 수흐바타르 미안홀루 (Sukhbaatar Jamiyankhorloo), 9.20	폴란드 국무장관 타데우시 코친스키(Tadeusz Kosciński), 9.20
	

* 이외 9.19일, 이라크 NIC 의장 하이데르 모하메드 함무디(Haider Mohammed Hammoodi) 와도 면담 진행